

Made in 월출산 수제 맥주 나온다

영암군, (유)무등산브루어리와 지역 특산물 활용 업무협약 영암 물·농산물로 맥주 제조...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4일 (유)무등산브루어리(대표 윤현석)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월출산 브랜드 수제 맥주 개발·교육·홍보·마케팅, 양조장 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지역농가·상인·청년이 상

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날 그 첫걸음으로 협약식 뒤, 영암 수제 맥주 시제품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여기서 올해 연말까지 영암의 특산물을 활용한 '영암 수제 맥주' 레시피 2종을 개발하고, 제품 용기 제작도 마치고 했다.

영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교우위의 수제 맥주 개발을 위해, 월출산 맥반석 물, 유기농 달마지쌀·메론·무화과·고구마 등 영암 대표 농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수제 맥주의 생산부터 마케팅 전반에 걸친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생산설비 구축과 제품 생산에 들어가 영암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수제 맥주 제조 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양조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우수한 농산물, 역사와 문화에서 걸어들어온 감성 등을 온전히 담아낸 수제 맥주 생산·판매·소비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에게는 낭만을, 농가에는 소득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훈련 실시 오늘부터 4일간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영광군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충무훈련'을 실시한다.

충무훈련은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실시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3년 주기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며, 차량·건설기계·기술인력 등의 자원동원 훈련과 피해복구 훈련 등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축소되었던 충무훈련을 정상화하여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통합 상황조치 연습, 국가중요시설인 한빛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민방공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현 국면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상시 임무수행 능력과 군민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충무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을 점검하고, 민·관·군·경 합동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박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식량 자급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20억원을 투입, 생산-저장-가공-유통 등 콩 재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

할 방침이다.

콩 재배 전과정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신품종(대찬, 선풍, 미풍 등)을 도입해 벼 대체 작목으로 육성한다.

올해 초부터 콩 기본교육을 실시해 농공 우수 생산단지 노하우를 농가와 공유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 육성한 기계화 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파종 전·후 습해 방지를 위한 분담 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함평=김광준 기자



무안군 삼향읍에 '대규모 리조트' 들어선다...풀빌라 등 2026년 완공

한강개발과 752억 투자협약

무안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성훈 무안부군수, (유)한강개발 홍정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한강개발에서 무안군 삼향을 왕산리 일원에 75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리조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한강개발은 리조트 조성을 위해 왕산리 일원에 5만 5098㎡(1만 6667평) 규모의 부지 매입을 마쳤다.

한강개발은 이 곳에 풀빌라(240실)와 글램핑장(20동), 해수욕장, 인피니티 풀, 레스토랑 등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번 대규모 민자유치 성공이 무안군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무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좋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안군은 현재 추진 중인 해제 도리포 관광휴양단지, 망조 조금나루 리조트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리조트를 유치함으로써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깨끗이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천일염 품귀 아니에요, 천천히 사세요" 자제 당부 신안생산자연합회 "햇소금 본격 출하되는 7월 이후 구입하세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과 맞물려 최근 폭주하고 있는 신안 천일염 주문 자제를 생산자연합회가 이례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이철순 회장은 15일 "최근 가격 상승으로 연일 천일염이 품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7월 본격적인 출하를 통해 올해 햇소금 가격이 형성되면, 고품질의 신안천일염을 적정가격에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23만기량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0% 차지한다. 생산되는 천일염의 약 35%는 관내 농협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며, 2023년산 천일염 매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농협에서는 간수가 제거된 2021년산과 2022년산 남은 재고량을 판매하고 있

며, 이마저도 주문 폭주와 물류사의 사정으로 7월까지 포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천일염 품귀' 언론보도로 천일염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농협 고유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비금농협 최승영 조합장은 "6월 현재 판매되는 천일염은 2년 간수가 빠진 것으로 20kg 1포대당 3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는 2021년에 2만 1000원에 매입해 간수제거를 통한 15% 감량·재포장·창고보관 등을 통한 것으로 택배비 6000원을 제외하면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2023년산 햇소금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 그때까지는 판매가격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